

# 고창 봉덕리 고분군 출토유물 기획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국가유산청 공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 기념 개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이달의 유물로 '고창 봉덕리 고분군 출토유물'을 선정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2월 한 달간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고창군 봉덕리 일원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 성과를 반영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마한 토기 등 총 12점의 유물을 공개하여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을 조명한다. 총 4기의 분묘(墳丘墓)로 이뤄져 있는 봉덕리 고분군은 지난 2009년 1호분 발굴조사에서 금동신발(보물)과 함께 중국제 청자, 청동잔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돼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이 당시 고창 지역의 최상위 계층임이 확인돼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이달의 유물로 '고창 봉덕리 고분군 출토유물'을 선정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2월 한 달간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린다.

하는 핵심 유적으로 국가적 인정을 받아 2026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봉덕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고, 유산의 가치를 알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은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을

비롯해 봉덕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마한·백제역사와 동학유산 등 풍부한 역사 교육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며 "고창이 간직한 문화유산을 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역사 콘텐트로 발전시켜 교육적·관광적 효과를 높이겠다"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25)

## 우리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자들에게 들기면 애매해진다. 명희는 황전마을의 박씨다.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남준의 처지도 그리 좋아 보이는 꼴은 아니다. 남준은 얼른 명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명희야, 도망가야 해. 경찰들에게 들킨 것 같아." 명희도 사태가 파악되었는지 울음을 수습하면서 남준의 손에 이끌려 장소에서 얼른 이탈했다. 남준은 명희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갔다. 막 있을 틈을 내듯 남준과 명희를 숨겨줬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 몇 명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다. 남준은 정신없이 명희를 끌고 숲으로 더 들어갔다. 그렇게 경황없이 가고 있는데 명희는 자꾸 발을 헛디뎠다. "앞이....., 앞이 잘 안 보여." 남준은 걸음을 멈추고 명희를 세웠다. "앞이 안 보이네?" "아까부터 그랬어. 조금 전 그걸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남준은 명희를 더 남준 쪽으로 당겨 어깨를 잡고 천천히 숲을 걸어들었다. "여기가 어디쯤 될까?" "봉암산일 거야. 선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이야. 일단 좀더 가자. 우리를 찾으려고 수색하고 있을지 몰라." 남준은 다시 명희를 부축해 숲을 헤치고 산으로 더 올라갔다. "이쯤이면 된 거 같아." 한참을 그렇게 올라간 뒤 남준은 명희를 바위에 앉혔다. 두 사람은 잠시 산을 올라오느라 가려진 숨을 다퉁이며 휴식을 취했다. "흐음, 흐음....." 호흡을 수습한 뒤 명희는 부모와 동생들이 죽었다는 현실이 다시 자각되었는지 울음을 입에 물었다. 남준은 명희의 슬픔에 깨끗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없었다. 진심어린 진정된 마음으로 명희의 애통함을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없었다. 남준은 명희의 부모와 동생들이 살해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강용대에게 봉림의 비극을 처음 알렸다. 강용대는 남준의 고자질로 복수를 결심했고 무자비하게 실행에 옮겼다. 물론 강용대의 복수는 남준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이런 결과를 낳을 걸 기대한 것은 아니다.

남준은 명희가 감정을 수습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명희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졌다. "눈은 괜찮아?" "조금....." 두 사람의 처지나 기분과 달리, 숲속은 막 물오른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을 달고 있는 나무들과 그 사이사이 핀 진달래와 개나리꽃으로 화사하기 그지없었다. 이팔청춘 두 사람의 시절과 계절은 잘 어울려 했지만 두 청춘은 화사한 계절에 섞여들지 못했고 분홍꽃과 노란꽃의 청초함에도 감흥을 얻지 못했다. 천혜의 고아가 되고만 두 사람이다. 전쟁이 터진 이후 고창 지역 사람들의 삶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풍비박산 났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두 청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불운한 사태도 많았다.

딱히 두 사람만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를 모두 잃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각자 끌어안고 통증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하는 걸까?" 명희의 질문에 남준도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남준 자신도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강용대 중대에서 몰래 빠져나온 처지라 다시 복귀할 수도 없다. 남준이 확대에 가입했다면 목적도 달성했다면 달성되었다. 조금 전 황전 사람들을 쏘 죽이는 현장을 보고는 오만정이 떨어졌다. 물론 전에 도곡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사살하는 걸 봤지만 사살된 자들은 전부 빨치산이거나 부역자들이라 정당한 행위로 스스로를 위안했다.

## “두바이 쫄득 쿠키 만들러 오세요”

정읍시 차향문화관, 체험 참여자 모집

정읍시 입산물체합단지 차향문화관이 오는 14일과 21일,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쫄득 쿠키(이하 두쫄쿠)' 만들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MZ세대 사이에서 확산된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반영했다. 참가자들은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카다이프(중동 지역의 얇은 국수)와 고소한 피스타치오를 활용해 고급스러



운 풍미의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특히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특별한 수제 선물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체험은 해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체험비는 재료비를 포함해 아동·청소년은 2만 5000원, 성인은 2만 600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월 9일부터 카카오톡 채널 '입산물체합단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회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체험 예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입산물체합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정읍시청 산림휴양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여은희 개인전 '수세미 자서전' 10~22일 누에아트홀서 개최

여은희의 개인전 '수세미 자서전'은 생태순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 프로젝트다.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결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12월 중반부터 원주 작가들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시는 원주문화재단 2025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지원금으로 제작·운영되었다. 여은희는 이번 개인전에 영상과 드로잉,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여은희는 온전한 마음을 쏟은 아카이브 작업으로 책 출간을 이번 프로젝트의

가치로 꼽는다. 한 생태 예술가의 시선으로 1년 간 텃밭에서 수세미를 재배하고 기록하고, 창작의 매체로 사용한 과정을 책으로 엮었다. 작가는 수세미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상에서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자신을 수세미와 일치시켰다. 이는 대상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전통적 관찰 방식과는 다른, 철저한 몰입과 공감을 통한 생태적 인식의 한 방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